토요저널
www.toyonet.co.kr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5면)

송파구의회 제336회 정례회 개회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처리됐다.

특히 구청장의 재의요구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재의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가결되어 확정되었다.

손병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올 한 해 구정 운영을 종합 점검하고 새해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행으로 인해 개선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견제는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비판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점인 만큼, 합리적인 비판이 존중될 때 정책이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은 물론 한파·폭설 등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